

## 대한치과의사협회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 - 회장에 이 기 택 씨 -



▲ 개회식 장면-김정균 회장의 인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4월 20일 서울 힐튼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많은 대의원과 이동모 보건복지부의전국장을 비롯한 윤홍렬 명예회장, 이종수 치정회회장, 김숙향 치위생사협회 회장등,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성황을 이루었다.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오전9시 정관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순서에서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묵념, 변석두 의장의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변석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필요없는 소모전을 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맞아 내실 있는 노력을 당부하고, 미래지향적인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일때라고 밝혔으며, 이어 김정균 협회장은

인사를 통해 회원들의 국민구강안전을 먼저 걱정한다면 현안문제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화합의 뜻을 밝혔다. 또 이동모 보건복지장이 대독한 김양배 보건복지부장



▲ 학술대상 - 이정식 교수 수상

관의 치사를 통해 치과의료계의 무궁한 발전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제22회 협회대상 학술상

에 이정식(서울치대)씨가 수상하였으며, 협회대상 공로상에는 대국민 의료봉사를 한 김원우씨가 수상하였다. 또 치과의료문화상에는 박영숙씨가, 치과의료봉사상에는 정호균씨, 복지부장관상에는 이정섭씨의 5인이 수상하였으며, 우수지부로는 충남지부와 제주지부가, 차봉익씨의 30인이 표창패를 수상하였고, 김정선(강원지부)·오영도(충남지부)씨가 직원표창 모범상을 천명윤, 조영숙씨가 직원표창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잠시 휴식후 변석두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검토를 상정 대전지부 윤형식대의원의 '유인물로 대처' 하자는 발언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이어 진행된 회무보고에서는 회무보고를 포함한 감사보고로 대

치, 식순을 바꾸어 감사보고가 진행되었다. 감사보고에 나선 이종수감사는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전문의제도의 소모전 등의 보고를 통하여 대화합의 질문을 부탁하였다. 이어 질문에 나선 서울지부 임문식 대의원은 협회장에 대한 질의에 나서 협회장의 전문치의제의 조속 실시 발언과 공인으

로의 회장의 자세 그리고 최근 야기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질의에, 협회장은 전문치의제 선행조건 조속한 실시를 요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최근문제가 야기되었던 고소, 고발 사건은 해당 당사자간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 사과를 받아들임으로 일단락되었다. 이어 서울지부 이수구 대의원을 비롯한 부산지부 김성곤대의원, 대구지부 고영환 대의원의 회관 이전에 관한 세금 및 과세의 이의신청, 협회회



▲ 의장-황해순. 부의장-최광철 당선자

관 수리비의 과다지출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과세 세금의 예측에 대한 미진했던 점과 예측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협회의 대외적인 이미지 등을 감안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경남지부 김선용 대의원은 치무위원회를 상대로 산업체근로자의 구강검사 실시에 대한 질의에 협회장은 노동부 소관에서 복지부로 넘어가면서 행정쇄신 위원회 등의 이유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부의 인정의제도 실시에 관한 질의에 김중수 학술이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대구지부에서는 법제이사에게 인정의는 없는 제도로 이에 대한 대처협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질의에 법제이사는 인정의 제도는 없는 제도임으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기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제43차 대의원총회에서 인정의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답변을 대신하였다. 이어 진행된 FDI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에서 서울지부 김동원 대의원 질의에 대하여 비용의 사용과 수처에 관한 답변이 있었으며, 한국인의 밤에 대해서는 91년부터 시행한 이래 우리나라의 홍보와 국력과시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부 박종수 대의원의 법제위원회에 대한 5개국의료 사고대책 판례 수집에 관한 건과, 기공소 단속조

항 삭제에 관한 질의에 대해 법제이사는 5개국에 요청한 의료사고 대책 판례의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국내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의료기사업 시행령 치과기공소 처벌요건완화에 대하여 기공소 단속을 목적으로 삽입된 조항의 불공정에 관한내용의 시정명령에 의하여 완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결산보고에서는 제주지부 이성주 대의원의 협회비 미납액에 관한 질의에 미납회비 정수 방안으로 개별통지 및 지로사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직지부의 적립금 가수금과 서울 권혁도 대의원 협회자산의 관한 질의가 있었으며, 김정균집행부

의 퇴임인사를 마지막으로 2부 순서를 마쳤다.

중식 이후 2시부터 속계한 3부에서는 김의식 임시대의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는 의장 후보에 황해순, 변석두씨가 부의장후보에는 최광철, 정상덕씨가 공천되었으나, 부의장 후보인 정상덕씨가 후보사퇴함으로 최광철씨가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재직인원 201명 중 참석인원 197명의 대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황해순씨가 127표를 득표하여 70표를 득표한 변석두씨를 제치고 새로운 의장에 당선되었다. 황해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화합과 공명정대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총회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회장단 선거는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진행을 맡은 주남균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로 각 후보간의 약 10분씩의 회장 입후보자 기호 1번 김현풍 후보, 기호 2번 윤희철 후보, 기호 3번 이기택 후보 순으로 정견발표가 있었고, 이후 투표에 들어가 1차 투표를 완료한 결과 197명 투표 중 기호 1번 김현풍 후보가 70표, 기호 2번 윤희철 후보가 63표, 기호 3번 이기택 후보는 64표를 얻어 백중세를 이루었으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2차 투표에 들어갔다. 2차 투표에서는 회칙에 따라 1차 투표의 1위인 김현풍 후보와 2위를 차지한 이기택 후보가 경합을 벌여



▲ 이기택 회장, 진훈식, 임형순, 정재규 부회장의 인사

투표인원 197명 중 이기택 후보측이 101표를 득표, 96표를 얻는데 그친 김현풍 후보측을 누르고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기택 회장 당선자는 당선인사 말을 통해 행동하는 지도자로서 회원의 뜻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감사단 선거에서는 김규문(서울), 김명득(부산), 정관희(서울), 씨가 선출되었다.

이어 진행된 '96회계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안 심의에서는 재무이사의 설명에 이어 이사회에서 결정후 총회추인을 받는 것으로 만장일치 통과하였으며, 제85차 FDI 서울 총회, '96회계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안 심의 역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정관 개정 순서에서는 대구지부와 공직지부의 상정안을 철회함으로써 가결되었으며, 이어 진행된 일반의안 순서에서는 첫번째, 서울지부 백순지 대의원의 제안 설명으로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직 1명, 지부 5명, 기타로 구성하는 치협 정관개정위원회 설립에 관한 건

을 상정하여 통과되었으며, 두번째 서울지부에서 수정제한한 치협회관 신규매입 및 구회관 매매에 따른 의혹 규명에 관한 건은 인천, 서울, 부산지부의 토론이 있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세번째 치협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선행조건의 충족될 때까지 총회에서 전문치의제를 논하지 않는다는 의안은 서울지부에서 철회하였고, 네번째 서울, 경북, 협회가 제안한 구강검사 실시 활성화에 관한 건은 지부장의 협의에 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섯번째 협회주관으로 표준화된 의료보험 청구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회원 무상배포에 관한 건은 가결되어 집행부에 건의되었다. 여섯번째 경남지부와 협회에서 상정한 치과보조인력 수급문제에 관한 건은 집행부에 위임되었다. 일곱번째 제주지부의 상정한 지부 임원 임기 변경에 관한건은 철회되었으며, 여덟번째 공직지부에서 상정된 법령 및 치협정관에 정한 바의 10개 전문과목의 "치과의사 수련기간 지정" 실시에 관한 건은 집행부에 건의 하기로 하였으며, 끝으로 협회 상정한 일부 부담금 회계 처리에 관한 건을 가결함으로써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는 폐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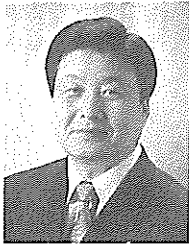
회장 李起澤 (1942. 10. 14일생)  
학력  
1961. 서울고등학교 졸업  
1969.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졸업  
1984. 연세대 대학원 치의학과 수료(치의학 박사)  
경력  
1972. 해군 대위 예편  
1984. 마포구치과의사회 회장  
1986. 서울치과의사회 법제이사  
1988.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14차 서울 아태회의 준비위원  
1990. 대한치과의사협회국제이사  
1991. 79차 F.D.I총회(이태리미란)수석대표  
1992.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80차 F.D.I총회(독일베를린)수석대표  
(1997년 서울 F.D.I 총회 유치성공)  
1993.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건립위원장  
81차 1997년 서울 F.D.I 조직위원

부회장 全 薰植 (1940. 11. 22일생)  
학력  
1959. 중앙고등학교 졸업  
1955.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82. 조선대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치의학 박사)  
경력  
1976. 강남구치과의사회 초대회장  
1982. 강동구치과의사회 회장  
1984.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1986.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1987. 서울 지방 검찰청 의료자문 위원(2회)  
1987. 서울시 의료심사 조정위원  
1988. 의료보험조합 연합회 진료비 심사위원  
1991.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부회장 林 炯淳 (1945. 2. 10일생)  
학력  
1963.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0.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77. 서울대 대학원 치의학과 수료(치의학 석사)  
1984. 조선대 대학원 치의학과 수료(치의학 박사)  
경력  
1973. 해군대위 예편  
1980. 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위원  
1984.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위원  
1990. 중로구치과의사회 부회장  
1993. 중로구치과의사회 회장  
1993.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위원  
1994. 대한 구강내과 학회 부회장  
1996. 서울시 치과의사회 전문의 대책위원

부회장 鄭 在奎 (1947. 8. 28일생)  
학력  
1966. 동북고등학교 졸업  
1974. 경희대 치과대학 치의학과 졸업  
1983. 경희대 대학원 치의학과 수료(치의학 박사)  
경력  
1978. 국군수도통합병원 보존과 과장겸 치과부장  
1980. 육군소령예편  
1984. 강남구치과의사회 조사이사  
1986. 대한치과보존학회이사  
1989.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회장  
1993. 대한치과의사협회 군부이사  
1996.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서울시 치과의사회  
제45차 정기대의원 총회  
-백순지씨 회장에 당선-**



백순지 회장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지난 3월 23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대의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시상 및 '95 회무·결산·감사보고·임원개선·'96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일반안전 심의 등을 가졌다.



▲ 개회식 장면

이날 총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본회의로 진행되었는데 개회식에서는 순국선열 및 선물치인에 대한 묵념 및 의장의 개회사, 회장 인사, 협회장의 축사 및 시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상에서는 제4회 서치대상으로 홍성익씨와 홍순용씨가 수상하였으며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의 시상이 있었고 잠시 휴식

후 진행된 2부 순서인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낭독 및 '95 회무, 결산,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정, 부의장 선거, 회장단 선거, 감사 선거 '96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안전심의등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대의원이 참석한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진행된 회장단, 의장단, 감사단 선거에서는 별 무리없이 진행되었는데, 광원배 임시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의장단 선거에서는 홍순용, 이중희, 이장훈, 임경빈 대의원이 출마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홍순용씨가 125표를 득표하여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이중희씨와 이장훈씨가 각각 53표를 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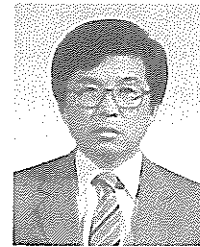
표하여 등수를 기록하였으나 연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중희씨가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이어 총회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는 회장단선거에 들어가 백순지 후보와 변영남 후보가 각각 10분씩

의 정견발표를 가진 후 투표를 실시 2백 71명의 대의원이 투표를 실시 백순지 후보가 1백 78표, 변영남 후보가 83표를 득표하여 백순지 후보와 조종만, 손창인, 이충복씨가 제30대 서치회장에 당선되었음을 홍순용 의장이 선포하였고, 신임감사로는 이창훈씨와 문복강씨가 선임되었다.

'96 예산안 심의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5억 1천 7백여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종로구의 홍예표 대의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편성된 예산으로는 회무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정책개발비와 판공비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만원 인상을 제안하여 통과됨으로 5억 4천 7백여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고, 이어 진행된 일반 의안 심의에서는 구강검사 실시 활성화, 가칭 치협정 관개정위원회 설립, 전문치의학 실행조건 충족시까지 치협 총회 논의 금지, 치협회관 매입및 구회관 매매에 따른 의혹 규명등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공직지부의 발전적 해체  
치의학회 창립  
공직 회장에 이금호교수 선출**



이금호 회장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 서울치대 강당에서 열린 공직지부 제 25차 정기총회에서李珏

浩 전부회장(경희치대 교수)이 새로 선출됐다.李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공직지부는 그 위상이 불분명하다며 조직상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齒協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유명무실해져가는 공직지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그대신 치의학회를 만들

겠다고 천명했다.

李회장은 현재 齒協의 학술부가 맡고 있는 일을 정리하고 치의학회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학술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이를 齒協 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건으로 올리기로 하고 현행 학술위원회 및 학술담당 부회장제를 「대한치의학회」 및 「대한치의학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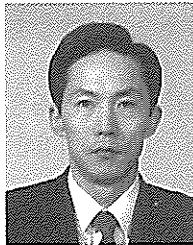
公職지부는 치의학회에서는 치의학교육, 치과의사 및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수련교육, 회원보수교육, 종합학술대회 등 학술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협회의 행정업무와 분리 관장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며 설립이유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만일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독립적으로라도 설립하자는 안이 대두됐다. 일단 올해에는 부결여부와 관계없이 이같은 안만 상정키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회장에 孫秉和(연세치대 교수)와 韓秀夫(서울치대 교수)를 각각 선출하고 감사에는 손동수, 이호용 전감사를 유임시켰다.

총회에서는 96년도 예산액 3천 7백 50만원을 승인한데 이어 현재 10개 전문과목을 수련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및 齒協에서 인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齒協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제28차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 김재덕 교수 신임회장예 -



김재덕 회장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는 지난 12일 스위스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제28차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있던 총회에서는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이병도의 10명에게 공로패 수여되었고, 회무·결산·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임원선출에서는 조선치대 김재덕 교수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으로는 이재희, 이기식씨가 감사로는 전해운, 조원표씨가 선출되었다.

한편 이날 있었던 학술강연회에서는 일본 요코하마 대학의 간지 기스히 교수의 『Current Advance and Future Directions of Imaging Systems in Dento-Maxillo-Facial Region』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이하선에 발생된 양성 림프상피성병소에 관한 증례보고』를 포함한 2편의 증례보고와 『디지털영상의 치근이개부 골손실 판독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포함한 9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37회 정기총회**  
이의웅 회장 유임



이의웅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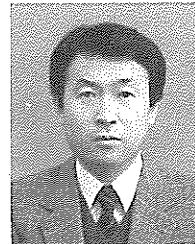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37회 정기총회가 지난 12일 3백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이의웅 회장을 유임시켰고 부회장에 정호균, 김충국씨를 선임하였고, 감사에 심광섭, 김여갑씨를 각각 선임했다.

이어 가진 '96 예산안 심의에서는 1억 7천 9백만원의 지난 회기 결산액을 승인하고 연회비 4만원, 입회비 2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2억 98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제36회 정기총회**  
회장에 박상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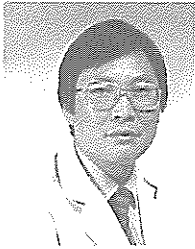
박상진 회장

대한치과보존학회는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 경희치대 지하강당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

여 신임 회장에 박상진 경희치대 교수를 선출하였으며, 감사에는 엄

정문 서울치대교수를 선출하였다.  
한편 96년도 예산안 3천 2백 19만여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정규림 교수**



정규림 회장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지난 3월 21일 오후 6시 제2회 평의원회의를 치협강당에서 개최하여 신입 회

장에 정규림(경희대학교) 차기회장을 선임했으며, 부회장 및 감사들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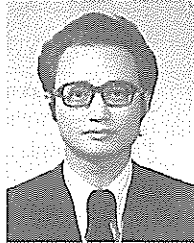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부회장은 성재현(경북치대)교수와 박영철(연세치대)교수, 조행작(조행작치과)원장 등 3명을 선출하였으며, 한광수, 이미대씨를 감사로 선출하였다.

또 평의원회는 96년도 예산 1억 6천 6백 82만 여원을 확정하였다.

**차트주문**  
TEL. 277-8867  
266-8398  
FAX. 268-5301

**광고문의**  
TEL. 277-8867  
266-8398  
FAX. 268-5301

**대한치과이식학회 창립 20주년  
학술대회 성료**



최광철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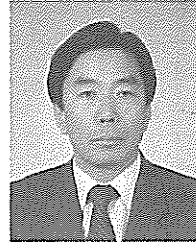
대한치과이식학회(회장 최광철)는 지난 3월 23~24일 양일에 걸쳐 엠버서더 호텔에서 창립 20주년

및 한국치과임프란트 임상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 국내연자 23명과 외국연자 4명이 이틀에 걸쳐 임프란트의 임상에 대한 특강 등을 가졌으며, 최광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회창립 20주년과 임프란트 임상 30주년이라는 전기를 맞아 보다 더 학술발전에 기여하자」고 밝히며 회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강연 내용으로는 UCLA 토마스 한 교수의 「Soft Tissue Management For Implant Surgery」를 비롯한 4연자의 특강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김명국 서울치대 교수의 「임프란트 시술시의 해부학적 고찰」 등 국내 20개 연제도 발표됐다.

또 이번대회에서는 김홍기 박사에게 학술대상이 수여되었으며, 기창덕, 유양석, 지광원, 유광희, 김광현회원은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주)광명데이콤, 한성종합상사등 19개 업체가 참석 기자제 전시회도 함께 이루어졌다.

**아세아구강악안면외과학  
회장에 김종원 교수**



김종원 회장

지난 3월 28~30일 삼일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막된 아세아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서 김종원

<서울치대교수> 부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세아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제 4대 회장에 김종원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며, 부회장으로는 중국의 리차드 장과 뉴질랜드의 리스텐 벨, 인도의 쾨 등 3명을 선출하였고, 이어 총무에는 일본 쓰르미 대학 교수인 세토 씨를 선출하였다.

또 편집위원회에는 일본 동경의과치과대학 교수인 메노모도씨, 재무위원회에는 일본 나고야 아지학원 대학교수인 구리다씨를 선정하였고, 홍보위원으로 한림의대 교수인 조병욱씨를 선정했다.

이번대회는 15개 정회원국과 17개 비회원국에서 6백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70여명이 대거 참석하였다.

학회이사회에서는 교육분과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부유한 국가에서 경제력이 낮은 국가의 치과 의사 교육에 힘써 나가기로 했으며, 뉴수레터 발행과 학회의 내실화에 힘쓰기로 했다.